

일본어 칭찬표현의 남녀차*

- politeness 관점에서 -

이정희**
leejh@dit.ac.kr

<目次>

- | | |
|--------------------|----------------|
| 1. 서론 | 3.2 연구대상과 방법 |
| 2. 선행연구 | 3.3 본 연구에서의 제안 |
| 3. 연구대상과 분석방법 | 4. 연구결과 분석 |
| 3.1 politeness의 정의 | 5. 결론 |

주제어: 칭찬표현(expression of praise), 공손법(politeness), 전략(strategy), 친화력(solidarity), 경쟁력(contest)

1. 서론

본 논문은 칭찬표현과 politeness의 관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 표현에서 있어서의 남녀의 politeness의 차이점을 대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칭찬표현¹⁾이란, 대화참여자 상호간에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나 호의를 나타내는 언어행위를 말한다. 칭찬표현의 개념은 나라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특히 서양에서는 칭찬에 대한 반응으로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데, 동양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칭찬을 부인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 표현을 해야 공손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칭찬표현은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언어 행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소한 어떠한 전략(strategy)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 전략으로써 사용하는 것이 politeness이다.

politeness는 의사소통 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상대방의 체면손상행위(FTA)²⁾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 표현일수록 공손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동의과학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의과학대학교 국제관광계열 관광일본어전공 교수

1) 이하 칭찬표현과 칭찬에 대한 응답의 표현 전부를 말한다.

2) 체면손상행위(face threatening act)라는 것은, 요청을 거절하거나 누군가를 꾸짖거나 나무라는 것과 같은

전략(politeness strategy)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친근감과 감정의 접촉을 중요시하여 상대방과의 친화력(solidarity)에 목적을 두고 있는 여성과 지위의 상하를 중요시하여 경쟁력(contest)에 목적을 두고 있는 남성은 의사소통 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는 politeness가 다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FTA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칭찬표현을 중심으로 남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적 공손(linguistic politeness)현상의 차이점을 대조 분석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고정관념과 성별에 따른 심리적 특성에 맞는 언어표현을 하여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politeness의 정의

politeness를 선택권과 손익의 관점에서 본 것은, Leech(1983)와 Lakoff(1975)이다. Leech(1983)는 청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화자는 손해를 보는 것이 politeness라 하였고, Lakoff(1975)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선택 안을 상대방에게 주어서 상대방의 기분을 최대한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politeness라고 하였다.

그러나 Levinson과 Brown(1987)은 상대방의 체면³⁾을 세워주는 언어적 표현행위를 politeness라고 하여, politeness를 체면(face)행위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이상에서의 politeness는 선택권, 이익과 손해, 체면 등이 모두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는 배려를 해야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politeness를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이미지를 언어로 나타내는 행위」라고 정의를 한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서 사용되는 것이 칭찬표현이다. politeness의 개념은 나라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칭찬에 대한 반응으로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데, 동양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칭찬을 부인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 표현을 해야 공손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칭찬에 대한 반응은 화자의 적극적 체면손

말을 통하여 상대방의 적극적인 체면이나 소극적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3) 적극적인 체면(Positive face)과 소극적인 체면(Negative face)로 구별하여, 적극적인 체면을 세우는 것은 자가들끼리만 사용하는 소속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친근하고 가까움을 강조하거나 상대방과의 공통적인 영역을 확보해 가는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체면을 세우는 것은 독자적 영역을 가질 수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강조하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 등으로 「독립」을 강조하는 것이다

상행위로 분류되고 있다.

Herbert(1986)는 일반적으로 칭찬 및 칭찬에 대한 응답표현형식을 도식화했을 때 기본적으로 C-CR(Compliment-Compliment Response)의 구조를 가진다고 했다.

칭찬 및 칭찬에 대한 응답표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연구대상이 되는 드라마에서 발췌한 인용문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たま子 : 田村たま子です。おばあちゃんでがっかりした?

服部 : あっ、いえ、とんでもない。優しそうではっとしました。

たま子 : ありがとう。ここではたま子先生と呼ばれて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一同 :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shall we ダンス?)

(1)과 같은 표현은 처음 보는 남성이 여성의 외관이나 모양새에 대해서 칭찬을 하였을 때, 적극적 공손표현인 [ありがとう] 로 감사하는 형태의 칭찬에 대한 수용을 하는 응답을 하고 있다.

(2) うずき : みんな何釣ってるんですか?

部長 : え?練習だよ、練習。

部長 : おー、君なかなか筋はいいよ。

うずき : そうですか?

(四月物語)

(2)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칭찬을 받은 만한 가치가 없다는 표현을 하거나 칭찬의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표현의 응답을 하고 있다.

(3) 純平 : 使ってくれよ。百万近くはあるぜ。

達郎 : ち、ちょっと待てよ。

これは、おまえ、ガキのころからの郵便積み立て貯金だろう。

純平 : いいって。使ってくれよ。

達郎 : 純平……

純平 : なくなよ、兄貴。

達郎 : いや、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おまえは最高の弟だよ。

純平 : いいってば。

(101回目のプロポーズ)

(3)과 같은 표현은 칭찬의 내용을 회피하고 거절하는 표현의 응답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칭찬에 대한 응답표현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응답표현의 전략을 다음과 분류하였다.

<표1> 칭찬 및 칭찬에 대한 응답표현의 구조

칭찬표현(Compliment)		
↓		
칭찬에 대한 응답표현(Compliment Response)		
수용형	비껴가기형	거절형
감사형 동의형 기쁨표현형 농담형	격려형 설명형 의구심 표시형	거절·비하형 당혹감 표시형

3. 연구대상과 분석방법

3.1 연구방법

모든 언어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전략(strategy)도 다를 것이다. 여성은 친근감과 감정의 접촉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담화 상에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strategy)으로 상대방과의 친화력(solidarity)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남성은 지위의 상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전략으로 경쟁력(contest)에 목적을 두고 있다(Tannen, 1984). 다시 말하면 여성은 「보다 협조적인 대화의 스타일」을 지향하고, 남성은 「보다 경쟁적인 대화 스타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적인 대화를 하는 남성보다는 협조적인 대화를 하는 여성이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 주는 공손한 표현을 아무래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친화력을 도모하는 협조적인 대화를 하기 위한 여성이 사용하는 칭찬표현의 politeness와 지위의 상하를 도모하는 경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한 남성이 사용하는 칭찬표현의 politeness는 다음과 같이 다를 것이다⁴⁾. 예를 들면,

(4) 藤井 : さきもしぶやくんに聞いたんだけど、フィアンセも、かなりの美人だっていうじゃない。

達郎 : いえいえ、まあ、自分で言うのもなんなんですけど、これが、また怖いほどの美人でして。いやあ、残念ですね、写真があれば課長にお見せするんですけどねえ。いや、ほんと、ちょっと想像を絶するほどの美人ですよ。あーっ、うん、残念だなあ、写真さえば……。今度、ご紹介しますよ、ね、課長……。

(101回目のプロポーズ)

이와 같이 남성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칭찬을 부인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농담형」으로 상대방의 말을 일부러 달리 해석하여 우스운 소리를 하여 친근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칭찬에 일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농담이 아니라 반박이 될 우려도 있다.

(5) たま子 : 相手がいないんだったら誰か紹介してあげましょうか?

杉山 : いや、あの、もしよかったら、たま子先生と踊りたいんですけど。

たま子 : ま、うれしい。でも無理じゃなくていいわよ。たまには違う人と踊ったら。

(shall we ダンス?)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화자 자신이 너무 자신만만하여 자신을 과시하는 말투나 건방스러운 말투를 피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칭찬에 감사를 하거나 기쁨을 표시하여 칭찬 대상물의 가치를 낮추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이처럼 칭찬표현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politeness 전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어떠한 상황에서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칭찬표현에 있어서 politeness의 남녀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드라마 상에서 나타나는 회화를 중심으로 대조하기로 한다.

4) 이정희(2003)는 남녀의 언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담화관에서는 여성은 유대감과 친밀감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남성은 독립과 경쟁력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또 담화의 목적에서는 여성은 상호확인 수단으로, 남성은 정보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언어전략으로 여성은 보상전략을, 남성은 처벌전략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3.2 연구대상

<표2> 연구대상

드라마·영화	감독명	장르
shall we ダンス	周防正行	영화
四月物語	岩井俊二	영화
101回目のプロポーズ	野島伸司	드라마
シコ ふんじやった	周防正行	영화
Love Letter	岩井俊二	영화
2年C組の奇蹟	藤田明二	드라마
放課後にあいたい	中野昌宏	드라마
さよなら…先生	富永卓二	드라마

3.3 본 연구에서의 제안

이상과 같이 칭찬표현에 있어서의 남녀가 사용하는 politeness 전략의 차이를 고찰하기 위해
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기로 한다.

가설 1 : 칭찬표현을 할 때에는 남녀 모두 politeness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가설 2 : 칭찬표현을 나타내는 politeness 전략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연구결과 분석

다음은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politeness 전략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화자의 성별에 따른 반응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strategy 1 : 감사형

「ありがとう」「どうも」「すみません」「サンキュー」「感謝する」「感動する」 등과 같이 칭찬
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수용형의 전략을 말한다. 이것은 화자가 칭찬을 했을 때 청자가 받아들
이는 것으로 청자는 화자와 의견이 같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살려주는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 내지 비평의 자제라는 점에서 적극적 공손표현의 일환이다. 이러한 표현은 남녀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적극적 공손표현으로 상대방과의 의견일치를 최대화하여 유대관계를 나타내고자 하는 표출형의 공손표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 표현은 여성(13.5%)이 남성(5.6%)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성이 협조적인 대화의 스타일을 지향하는 politeness 전략을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strategy 2 : 동의형

「そうそう」「そうだね」「そうね」「そうですね」「知ってる」「私もそう思う」 등과 같이 동의나 공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수용형의 전략을 말한다. 이것은 화자가 칭찬을 했을 때 동의나 공감으로 청자는 화자와 의견이 같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살려주는 것으로 이 표현 역시 상대방의 동의 내지 비평의 자제라는 점에서 적극적 공손표현의 일환이다. 이러한 표현은 남녀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적극적 공손표현으로 상대방과의 의견일치를 최대화하여 유대관계를 나타내고자 하는 표출형의 공손표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 표현은 남성(16.6%)만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동양에서 여성이 칭찬에 대한 동의나 공감의 뜻을 나타냈을 때는 지칫 자신을 과시하거나 건방스러운 말투로 오해를 받기 쉬우므로 이 표현을 피하고 있다.

strategy 3 : 기쁨표현형

「うれしい」「よかった」「気分がいい」「うふふふ」 등과 같이 칭찬을 하였을 때 칭찬에 대한 응답의 표현으로 웃음을 나타내어 기뻐하는 형태로 수용형의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도 남녀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적극적 공손표현으로, 상대방과의 의견일치를 최대화하여 유대관계를 나타내고자 하는 표출형의 공손표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 표현은 여성(24.4%)이 남성(5.6%) 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칭찬에 대한 응답으로 기쁨을 나타내어 상대방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politeness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strategy 4 : 농담형

「あたりまえでしょ」 등과 같이 농담도 수용형의 응답표현으로 전제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상대방의 칭찬을 부인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일부러 달리 해석하여 우스운 소리를 이용할 정도로 친근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 상대방의 칭찬에 일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농담이 아니라 반박이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칭찬에 대한 수용의 표현은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한 표출형의 공손표현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 표현은 남성(5.6%)만이 사용하고 있는데 칭찬에 대한 응답을 농담으로 나타내어 상대방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politeness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strategy 5 : 격려형

상대방의 잠재적인 능력이나 가능성을 인정하며 격려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친근함이 유지되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껴가기형의 전략을 말한다. 따라서 이 표현도 표출형의 공손표현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이 표현은 여성(18.9%)만이 사용하고 있는데 칭찬에 대한 응답으로 상대방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인정하며 격려하는 표현으로 상대방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politeness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strategy 6 : 설명형

설명형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 상대방의 칭찬에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상대방의 칭찬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겸손함을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비껴가기형의 공손표현이 된다.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한 공손표현이므로 표출형의 공손표현이 된다.

본 논문에서 이 표현은 여성(8.1%)만이 사용하고 있는데 칭찬에 대한 응답으로 칭찬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politeness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strategy 7 : 의구심 표기형

「そうですか」나 「うそ」 등과 같이 표현상으로는 상대방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상대방이 칭찬해준 내용을 인정하거나 동의하고 싶지만 예의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구심 표기형도 화자의 본심은 칭찬을 받는 것이 당연하더라도 상대방의 칭찬에 대해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게 되는 비껴가기형의 공손표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구심 표기형도 화자의 자신의 겸손함을 상대방에게 나타내기 위한 표출형의 공손표현에 해당이 된다.

본 논문에서 이 표현은 여성(27.0%)이 남성(11.1%)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칭찬을 인정하거나 동의하고 싶지만 예의상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여 상대방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politeness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strategy 8 : 거절·비하형

「いやいや」와 같이 상대방의 칭찬에 거절을 하거나 칭찬의 내용을 부정하는 표현이다. 또 「ㄴㄴ」와 같이 칭찬의 내용을 회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칭찬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상대방의 칭찬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거절형의 공손표현도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출형의 공손표현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이 표현은 남성(38.9%)이 여성(5.4%)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칭찬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하여 상대방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politeness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strategy 9 : 당혹감 표시형

당혹감 표시형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 성격 등에 대한 칭찬을 받았을 때 수용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내는 칭찬에 대한 응답표현으로 거절형의 공손표현이다. 따라서 이 표현은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당혹스러운 표현으로 화자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공리이기 때문에 표출형의 공손표현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이 표현은 남성(16.6%)이 여성(2.7%)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칭찬을 수용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당혹스러운 표현을 하여 상대방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politeness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의 <표3>은 담화과정 상의 칭찬표현에 나타나는 남녀의 politeness 전략을 조사한 것이다. 이 표현의 응답 수는 총 110개였다. 세 가지의 상위전략을 범주화한 후, 그 전략유형과 politeness 전략 양상을 남녀별로 조사한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 화자의 성별에 따른 칭찬표현의 전략 유형

전략 유형		합 계			
상위전략	하위전략	女		男	
		수	(%)	수	(%)
수용형	감사형	10	13.5	2	5.6
	동의형			6	16.6
	기쁨표현형	18	24.4	2	5.6
	농담형			2	5.6
	소계	28	37.9	12	33.4
비껴가기형	격려형	14	18.9		
	설명형	6	8.1		
	의구심표시형	20	27.0	4	11.1
	소계	40	54.0	4	11.1
거절형	거절·비하형	4	5.4	14	38.9
	당혹감표시형	2	2.7	6	16.6
	소계	6	8.1	20	55.5
합계		74	100	36	100

5. 결론

칭찬과 칭찬의 응답표현은 대화자 상호간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표현이므로 남녀 모두 politeness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상위전략으로는 수용형은 남녀 모두가 사용하였고, 비껴가기형은 여성이 많이 사용하였고, 거절형은 남성이 많이 사용하였다. 비껴가기형이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대감과 친밀감을 담화의 목적으로 하는 여성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거절형이 여성보다 남성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독립과 경쟁력을 담화의 목적으로 하는 남성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위전략으로는 여성은 감사형, 기쁨표현형, 격려형, 설명형, 의구심 표시형 등의 전략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였고 남성은 동의형, 농담형, 거절·비하형과 함께 당혹감 표시형의 전략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도 남녀의 심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담화상에서 담화의 목적이나 언어전략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는 연구는 칭찬과 칭찬의 응답표현의 한 단면임을 밝혀두고,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된다.

【参考文献】

- 김영실(1996)「언어적 공손 현상의 화용론적 연구」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원표(2001)『담화분석』한국문화사, pp.323-364
 井出祥子(1993)『世界の女性語 日本の女性語』明治書院, pp.4-12
 重光由加(1993)『会話のパターン』明治書院, pp.135-140
 メイナード・K・泉子(1993)『アメリカ英語』明治書院, pp.13-19
 横田淳子(1986)「ほめられた時の返答における母国語から社会言語学的転移」『日本語教育』日本語教育学会, pp.203-223
 Brown, P. and Levinson, S.(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Lakoff, Robin. (1975), Language and Woman's Place
 Leech, G. N.(1983). Principles of Pragmatics.London: Longman
 Herbert, R. K.(1986). The ethnography of English compliment responses: A contrastive sketch. In W. Oleksy(Ed), Contrastive Pragma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Tannen, D. (1984), Conversational Style: Analyzing Talk among Friends. Norwood, NJ: Ablex.

논문투고일 : 2017년 03월 31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4월 17일
 1차 수정일 : 2017년 05월 10일
 2차 수정일 : 2017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5월 16일

 <要旨>

일본어 칭찬표현의 남녀차

- politeness 관점에서 -

이정희

본 논문에서는 일본어의 칭찬표현에서 사용되는 politeness strategy의 남녀차를 대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담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칭찬표현의 politeness strategy는 남녀의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은 감사형, 기쁨표현형, 격려형, 설명형, 의구심 표시형 등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였고, 남성은 동의형, 농담형, 거절·비하형, 당혹감 표시형의 politeness 전략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칭찬과 칭찬의 응답표현의 한 단면임을 밝혀두고,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된다.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in Japanese Praise Expression

- In Terms of Politeness -

Lee, Jung-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male and female differences of the Japanese politeness strategy used in the praise expression. The politeness strategy of praise expression in the process of conversation was a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Women used a lot of appreciation type, pleasure expression type, encouragement type, explanation type, and doubtful expression type. On the other hand, men used the politeness strategy of agreement type, the joke type, the rejection·abasement type, and embarrassment type relatively.

This study is a cross-section of expression of praises, and it is likely that the survey results will vary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